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출현: 대중의 '영토성'과 바로크적 에토스*

– 동네공동체(organización barrial)와 도시토지위원회
(Comités de Tierras Urbanas)를 중심으로 –

안 태 환

부산외국어대학교

안태환(2015),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출현: 대중의 '영토성' – 동네공동체와 도시토지위원회를 중심으로 –,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초 록 본 연구는 2002년 차베스 정부에 의해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도시토지위원회를 출현하도록 만든 도시 빈민 대중의 자발적인 집단적 동네공동체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출현 동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촌에서 도시로 집단적으로 이주한 도시 빈민 대중은 불법적으로 유희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점유하고 스스로 주택을 짓고 동네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은 1980년대가 되기 전에는 소극적인 정부의 사회정책의 시혜 대상이었고 중간계급 이상의 '시민'에 포섭되어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에 의해 공공정책 또는 사회정책이 축소되는 현실 앞에서 대중은 집단적으로 점유한 토지 소유권의 합법화를 국가에 요구하면서 '집단적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투쟁하게 된다. 이런 투쟁과정을 통해 이들 대중은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 또는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 출현하게 된다. 도시 빈민 대중의 항의와 요구에 민감했던 차베스 정부는 2002년, 2006년, 2011년의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해 동네공동체를 제도적으로 흡수하여 도시토지위원회를 만들고 토지소유의 합법화와 집단적 토지 소유권의 인정과 도시 공공정책을 토의하고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도시 정책에 대중이 참여하는 도시의 민주주의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출현에는 도시빈민의 동질적인 공동체적 일상문화 즉, '영토성'이 그 동력이었다.

핵심어 동네공동체, 도시토지위원회, 집단적 토지 소유권, 영토성, 바로크적 에토스, 도시의 민주주의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

I. 들어가는 말

신자유주의 체제가 시작된 1980년대에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자신들의 삶의 장소를 지키려는 도시빈민 대중과 토지를 재산 또는 자본으로 지키려는 부동산 기업들 사이에 갈등 전선이 형성된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합법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자는 강제퇴거에 맞서 싸우는 집단적 투쟁력이 무기였다. 이 갈등 전선에서 당연히 헤게모니는 후자가 가지게 되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도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도시 외곽의 공공시설이 전무한 빈민가로 쫓겨나게 된다(Fernandez Cabrera 2012, 52). 이런 맥락에서 베네수엘라의 ‘동네공동체’의 경험이 ‘도시 토지위원회’라는 법적 제도적 주체로 발전한 경우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위에서 언급한 양자 사이의 갈등의 핵심에는 삶의 방식 또는 삶의 재생산과 사회발전을 둘러싼 모델들 사이의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문화적 함축을 짊어 가진다.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근대 자본주의의 유토피아를 구현한 곳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계급과 계층의 구분에 따라 파편화되고 분리되고 배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도시 계획이 잘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고유성을 표현하는 하위문화의 사회관계가 발달한 탓이다.

베네수엘라 친(親)차베스 진영의 핵심은 노조나 정당이 아니고 대중 부문(sectores populares)이다. 여기서 대중은 기득권 계급을 제외한 모든 인민 특히 가난하고 배제된 사람을 상정한다(Lopez Maya 2005, 86). 대중을 억압하는 기득권 계급의 타자와 ‘내부적 경계선’(Laclau 2005, 99)을 유지하는 것이 차베스 체제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를 단지 친차베스, 반(反)차베스 진영의 정치적 양극화로 이해하기보다는 대중이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 출현하면서 정치적으로 기득권층과 부딪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998년 대통령 당선 이전에 차베스는 이미 헌법의 전면적 개정의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9년 제정된 신헌법 제82조에 미디어와 대기업(시장)의 권력이 아닌,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서 대중 권력을 상정하고 대중이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Fernandez Cabrera 2012, 64)과 함께 주거권을 국민의 헌법상 사회권으로 인정하게 되었

다(Fernandez Cabrera 2012, 51). 이같이 주거권과 관련하여 대중 권력의 강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2002년 법률 제1666호에 의한 “도시토지위원회”(Comités de Tierras Urbanas)의 설립이다. 도시토지위원회는 2012년 현재, 약 7,800개로 추정되고 각각의 도시토지위원회는 150-300의 가구로 구성된다(Fernandez Cabrera 2012, 51).

라클라우(2009, 28)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제 자체가 이미 ‘배제’를 기본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배제를 둘러싼 헤게모니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베네수엘라는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의 정책 집행에 의해 사회정책 또는 공공정책이 축소(Lopez Maya 2005)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대중을 배제시킨다. 이렇게 배제된 대중은 빈민가인 ‘동네’에 모여 사는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상징적으로도 배제된다. 즉, ‘도시’의 이미지에 ‘동네’는 없다. 지도에도 토지등기부에도 없고 동네는 단지 위험한 곳 또는 비정상적인 곳 외에 도시의 수사(레토릭)에 존재하지 않았다(Colau 2007, 1). 하지만 이들은 서로 연대하고 저항하며 점점 대중으로 조직되고 정체성이 형성되어 간다. 이렇게 대중이 형성된 것은, 대중이 차이와 배제를 끊고 사회문화적 동질화를 통해 총체성을 획득하려는 헤게모니적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베스 체제의 핵심적 지향점은 대중의 배제를 거부하고 대중의 자기 통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급진성 회복’에 있다. 민주주의가 급진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차베스 체제가 사회정책 또는 공공정책의 확장을 통해 국가에 의해 ‘사회적인 것’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된 대중이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라클라우(Laclau 2005, 221)도 차베스 체제를 ‘자유주의적 제도화’의 대의민주주의를 뛰어넘어 평범한 대중의 요구를 급진적으로 수용하는 급진 민주주의의 발현으로 인식한다. 일종의 전복 또는 단절이 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배제되어온 어떤 집단이 새롭게 정치적 주체 또는 행위자로 출현한 것이므로 당연히 기존 사회관계의 변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에 토지의 소유주 또는 부동산기업은 토지를 자본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도시 빈민 대중은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암시장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소유권을 매입한 토지를 ‘집단적 소유’(Fernandez Cabrera 2012, 51)로 인식하며 토지 점유의 합법화를 요구했다. 즉, 집단적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한 사회운동을 펼친 것이다. 본 연구자는 그 투쟁의 과정을 이끈 동력이 이들 대중이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적이고 독특한 ‘영토성’(territorialidad)을 가졌기 때문임을 밝히려고 한다. ‘사적 소유’를 철칙으로 하는 상식적인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서 벗어나는 베네수엘라 도시 빈민 대중의 독특한 집단적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르페브르(2011, 51)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억압적 공권력의 사용 외에 문화와 지식에 의해 사회관계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영토성이란 정치 지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아비타트(주거권)의 방어를 위한 사회 그룹의 집단적 투쟁과 행동을 위한 권력관계”(Fernandez Cabrera 2012, 51)이다.

영토성은 정치지리학에서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치적 실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원주민 운동의 경우, ‘영토’라는 개념은 단순히 ‘토지’의 용어를 넘어 사회, 정치적, 우주관적 차원을 가진다. 그럼에도 영토를 위한 투쟁은 토지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토지는 단순한 물질적 생산 수단일 뿐 아니라 삶과 실존적 의미를 지키는 상징적 차원을 가지기 때문이다.(Bustos Avila 2009, 2, Fernandez Cabrera 2012, 51-52 재인용)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베아트리스 페르난데스 까브레라(Beatriz Fernandez Cabrera, 2012)는 도시 빈민 대중이 1980년대 이후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를 집단적 영토성의 개념으로 지켜온 과정을 분석했다. 그녀의 다른 논문(Fernandez Cabrera, 2011)은 이 집단적 영토성이 열대 음악과 춤 등의 공통적이고 독특한 일상문화의 감성적 연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 다른 논문(Fernandez Cabrera, 2013)은 2011년 차베스 정부에 의해 ‘미션 주택’(Gran Misión Vivienda) 사업의 일환으로 수해 등으로 집을 잃은 무주택 대중의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이들을 새로 이주시켜 형성한 리모네라(Limonera) 공동체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출신 지역이 다름에 따른 고유한 삶의 방식 즉, ‘영토성’이 다름에 따라 갈등요소가 생기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논문(Fernandez Cabrera, 2014)은 대중의 영토성과 주체성에 대한 이론적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 베아테 융헤만(Beate Jungemann, 2014)은 차베스 체제를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기획으로 해석하며 그 핵심은 새로운 공공정책의 강화를 의미한다. 미겔 앙헬 콘트라라스 나테라(Miguel Angel Contreras Natera, 2003)는 근대적 시민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급진적 민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이 문화적 저항과 기억의 정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필자는 1980년대에 도시 빈민 대중이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 ‘출현’한 동네공동체부터 시작하여 차베스 정부에 의해 도시토지위원회로 제도화된 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필자는 후자에 치중해서 도시 빈민 대중의 영토성, 집단적 기억, 바로크적 에토스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¹⁾ 연구방법은 설문조사 등의 현장조사 연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사회 역사적 맥락의 분석을 통한 현실 이해의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따라서 심층적 현장조사 연구의 결여로 인해 동네공동체의 구체적 활동방식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II. 동네공동체의 주민은 ‘시민’인가 ? ‘대중’인가?

현재 집권이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의 급진 좌파정부들은 과거 20세기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 계급’을 우선했던 것과 달리 ‘대중’을 중시한다.²⁾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가 수십 년

1)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을 수식하는 형용사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난한, 소외된, 다중적, 후진적, 전통적, 비공식적, 전 근대적, 무정형의, 민중적, 서발턴적”(Fernandez Cabrera 2014, 123)등이다. 이런 대중의 복합적 정체성에 대한 접근을 정치 이념적 시각에서 접근하다보면 애매해지고 구체적 현실의 맥락에서 멀어지기 쉽다. 이에 비해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동안 지속된 결과 노동자 계급이 이미 균질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이질적으로 파편화되었기 때문이다(Harnecker 2010, 66). 예를 들어,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일하지 못하고 길거리 행상 등의 일을 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가 매우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8년 현재,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자가 도시의 경우, 49%, 농촌의 경우, 35%에 이르고 있다(벨트마이어 & 페트라스 2012, 183). 따라서, ‘시민’ 또는 ‘대중’을 호명할 때 담론의 구체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평의회 of 핵심적 의사결정 기구인 주민총회를 스페인어로 “시민총회”(Asambleas de Ciudadanos y Ciudadanas)(D’Elia 2013, 9)로 부르는데 실제로 주민평의회 of 집단적 주체는 ‘시민’ 이라기보다 기득권 계급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온 빈민 ‘대중’이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사회관계에서 배제되어 공간적으로도 배제되어있는 근대성의 시민적 규범의 밖에 있는 ‘비공식’적 존재들이다(Fernandez Cabrera 2014, 121). 이런 동네공동체의 도시 빈민 대중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관련 당국의 퇴거 명령에 저항하였다면 이들을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적 근대적 규범을 지키는 ‘시민’으로 호명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이들을 시민으로 호명하는 맥락은 도시민의 범주에 이들을 포용하려는 정치적 의지로 해석된다.

베네수엘라 도시 빈민 ‘대중의 요구’(Laclau 2005)의 핵심은 자신들을 배제한 공공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강력한 복원이었다.³⁾ 이에 응답한 차베스 혁명도

-
- 2) 도시토지위원회를 분석하고 있는 학자의 논문에서도 노동자 계급이라는 표현 대신에 “대중 부문”(sectores populares)으로 호명하고 있다(Fernandez Cabrera 2011, 36).
 - 3) 차베스는 “신자유주의 기획은 좋은 경제정책이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라는 비인간적인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 반면, 볼리바리안 대안 아젠다는 가장 좋은 사회정책은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Parker 2005, 46). 라클라우에게 ‘대중’은 현실 사회주의 담론에서의 계급과 같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맥락 안에서 서서히 형성된다. ‘대중’이 선형적인 개념이 아니라 는 주장은 당연히 대중에 대한 해석이 헤게모니적이란 의미이고 그런 주장이 가능한 맥락은 ‘대중’이 사실은 “비어있는 기표”란 의미이다. 라클라우에게 “비어있는 기표”는 핵심적 개념이다. 비어있음으로 인해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것이다. 보편자는 비어있는 자리, 특수자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지만 바로 그 비어있음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구조화/탈구조화에 일련의 결정적 효과들을 산출하는 공백이 된다(Laclau 2009, 93). 최종심급에서 선형적으로 결정되는 총체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된 대중에 대해 1980-1990년대에 걸쳐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국가의 축소된 사회정책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는 실천을 폈다
 (Jungemann 2014). 이같이 차베스 혁명의 사회정책 또는 공공정책의 주된 대
 상은 빈민 대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간계급보다 국가에 더욱 의존한다. 그리
 하여 국가와 대중 공동체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중간계
 급은 정치적인 것의 접근을 위해 시민사회의 조직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Fernandez Cabrera 2014, 130).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민성’, ‘시민사회’ 또는
 ‘대중’이라고 하는 근대 사회과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심사숙고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도의 인류학자 채터지(Chatterjee 2011, 200)에 의하면
 , 보편적 시민성의 실현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만 작동되고 이
 세계의 대부분의 대중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정치사회의 일원으로 정치적 주
 체로서 정치적인 것에 참여한다”. 랑시에르(2008, 241)도 민주주의의 주체인
 “데모스”가 공동체의 “뭉 없는 사람들” 즉 배제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
 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평범한 다수의 소비 대중을 가리킨다. 그런데 대
 중은 ‘프롤레타리아’ 등의 계급 담론과 같이 선형적, 동질적이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고정되지 않고 전염되고 흘러가는 흐름”(이진경 2008, 46-73)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그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중은 일반시민으로서의 맥락을 가지는 경우(pueblo)도 있고 배제
 된 하층계급을 의미하는 경우(plebeyos)도 있다(Marchar 2006, 55). 구체적이
 고 역사적인 맥락의 차이에 따라 시민과 대중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누
 구에 의해 그 단어가 발화되는냐는 맥락의 차이에 따라 또다시 의미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구의 개인주의의 틀에 비해 라틴아메리카는 ‘공동

따라서 서로 다른 “차이”들의 상호작용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체성과
 총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배제”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배제를 위해서는 서
 로 동질화되는 움직임이 있게 되어 ‘차이’의 흐름과 ‘동질화’ 사이에 항상 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완전함에 이르려는 총체성은 도달이 “불가능하나 필요하게” 된다. 이
 리하여 부분성이 총체성을 재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이다(Laclau 2005,
 93-95).

성’(comunalidad)이 강하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사회관계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공공 사안에 ‘행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민주주의를 급진화하기 위해서 시민이 개인적 사안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 사안에 적극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성’의 문화가 강해야 한다(Mouffe 1992, 4-5). 이런 맥락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는 민주주의를 대중이 견인하는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에서 1989년 집권세력에 대한 항의의 폭발인 “카라카소”(Caracazo)를 주도한 세력은 학생과 도시 빈민 대중이었다(Lopez Maya 2005, 66-67).

III. 1980년대 동네공동체 출현의 역사적 맥락

1980년대부터, 최소한도의 인간적 생존을 위해 집단적인 ‘자기 건축’(auto-construcción)과 토지 소유권의 합법화(regularización jurídica de la tenencia de la tierra)를 위한 투쟁을 통해, 새로운 집단적(사회적) 대중 주체(sujeto popular colectivo o social)가 출현한다. 투쟁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집단적 주거권을 위한 대중조직(organización del habitat colectivo popular)(Fernandez Cabrera 2012, 54) 또는 동네공동체(organizaciones barriales)(Fernandez Cabrera 2012, 55)로 부른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 차베스 정부에 의해 동네공동체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법적으로 제도화된 도시토지위원회가 된다.

도시토지위원회는 기득권층 또는 중간계급이 거주하는 동네가 아니라 농촌과 도시의 빈민 대중(sectores populares)이 거주하는 곳에 있다. 도시토지위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가난한 대중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동네로부터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들이 ‘대중의 요구’를 통해 집단적 주체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과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의 요구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도시토지위원회는 2002년의 법률 제1666호와 2006년의 법률 그리고 2011년의 법률에 의해 제도화 되었다(Fernandez Cabrera 2012, 51).

베네수엘라는 1920년대부터 석유가 개발되었고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

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토지 소유제가 온존해왔다. 경제적으로 석유에만 의존하는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모든 일에 개입하는 체제로서 정치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괜찮지만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질 때는 매우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석유 수출로 인한 달러 유입이 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 국가구조로 인해 농업이 황폐화되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농수산물식품 수요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했다(Boudin 2006, 132). 식품 수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자국의 농업이 피폐해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라카스는 이미 1930-40년대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진다(Fernandez Cabrera 2011, 39). 그리고 1960년대에 농촌 주민의 도시로의 대량 이주 즉 격렬한 도시화가 일어난다. 현재에도 베네수엘라는 도시화 비율이 무척 높다. 예를 들어, 2011년 현재 도시화 비율이 88.8%에 달한다(Jungemann 2014, 3). 그로 인해 카라카스는 매우 혼란스러운 도시가 되었다(Rebotier 2010, 2). 도시가 흡인력이 있어 시골에서 온 것이 아니라 농촌이 피폐해지면서 농촌 주민을 도시로 밀어낸 것이다.

그로 인해 농촌의 가난한 대중이 도시의 외곽 동네에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된다. 1930-40년대부터 이주가 시작된 카라카스의 첫 번째 동네를 “주민 연결체(ligas de colonos)” 또는 “연합체(juntas)”로 부른다(Fernandez Cabrera 2011, 39).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도시 주민의 50% 이상은 농촌에서 추방되어 도시의 외곽 변두리 지역에 주거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으로 이주했다(Fernandez Cabrera 2012, 52). 그리고 이들 도시 빈민은 대부분 슬럼가 또는 동네를 집단적으로 형성하고 정규직 노동보다는 행상 등 비공식부문의 노동에 종사한다. 그리하여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도시의 다른 공간에 비해 훨씬 동질적인 “동네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에 비해 역설적으로 설계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시의 추상적 공간은 겉으로는 기하학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동질적이지 않다(르페브르 2011, 417-419). 그러나 1980년대 이전까지는 가난한 대중이 같은 동네에 모여 살았어도 새로운 정치, 사회적 행위자 또는 집단적 주체로 출현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개인들로 분산되어 있었다.

관계를 흔들 수 있는 국면이 전개된 것이다. 정치 지형의 표면으로는 대중운동을 억압하는 국가의 지배적 기능만 남게 되었다(Fernandez Cabrera 2011, 40). 페르난데스 까브레라(2011, 36)에 의하면, 흩어진 개인들이 사회적(집단적) 주체로 형성되려면 먼저 “사회적 행동과 해석의 기존 시스템과의 단절”이 생겨야 한다. 도시 빈민 대중은 기존의 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작동 방식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들 집단 주체의 인식의 차원에서 ‘단절’의 대상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였다. 그렇게 된 이유는 평등의 이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대중은 집단적 ‘기억’의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Fernandez Cabrera 2011, 38). 베네수엘라의 평범한 대중에게 오랜 집단적 ‘기억’은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기의 소수 대지주들에 의한 수탈과 이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몬 볼리바르 장군의 독립투쟁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참여했던 기억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를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약 5년 동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특히 심각했던 시기가 1983년이였다(Lopez Maya 2005, 32).⁵⁾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대외적으로 외채위기에 겹쳐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가난한 대중은 정치에 대해 점증하는 불만이 있었지만, 생존의 사적 영역으로 고립되어 선거에서 엄청난 기권율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1978년의 12.5%의 기권율이 1989년에 54.4%로 증가했다. 중요한 것은 1980년대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사회 공공정책의 몫을 50% 이상 축소시켰다는 점이다(Fernandez Cabrera 2011, 40).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적 구조변화의 맥락에서 기득권 계급과 대중 부문 사이의 해계모니 투쟁이 본격화된다. 예를 들어, 보우딘(Boudin 2006, 123)에 의하면

5) 1983년 2월 21일의 경제위기를 일명 “검은 금요일”사태로 부른다. 석유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한계로 인한 경기 침체와 외채문제 재협상을 위한 정부조치의 지연이 겹치고 이 당시 전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위기와 상응하여 터진 것이다. 볼리바르화의 평가절하 등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의 항상적 대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Lopez Maya 2005, 23).

1997년 현재 상위 5%의 부자가 하위 5%의 사람들보다 약 53배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85%가 빈곤하고 67%가 극빈의 조건에 살고 있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공식 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1990년대 내내 크게 빈곤과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정책은 약화되고 있었다. 1990-1991년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의 사회정책 예산지출은 라틴아메리카의 평균인 10.1%보다 낮은 9%였고 1996-1997년은 그 격차가 12.4%대 8.4%로 약화되고 있었다(Parker 2005, 47). 이에 대중은 지속적으로 시위와 항의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1989년부터 1998년 사이에 약 6천 번 이상의 대중의 항의가 있었다(Burbach and Piñero 2007, 181). 이 국면에서 빈민 대중에 주목한 카리스마 강한 지도자인 차베스가 1982년부터 비밀운동 세력(MBR-200)을 형성하면서 정치 지형에 뛰어든다. 다시 말해 차베스 혁명의 기점에 대한 이해와 도시 빈민에 대한 이해는 서로 떨어트려 볼 수 없다(Canache 2004, 33).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가난한 대중은 더욱더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 저항이 계속되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도 체제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자, 슬럼가인 ‘동네’에 모여 사는 가난한 대중밖에 대안세력이 없게 된다. 개인들이 파편처럼 흩어진 소비 대중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도시 빈민 대중이 새로운 주체로 출현한 것이다. 이들 가난한 대중이 새로운 주체로 출현하게 된 맥락은 공공정책 또는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기존의 정치, 사회적 기득권세력과의 투쟁을 기존 제도, 즉, 정당, 의회, 노조를 통한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대중이 이렇게 힘 있는 대안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대중이 집단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방식을 통해 “공간의 사회적 구성”(르페브르 2011)을 형성하고 ‘대중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시토지위원회가 차베스 정부에 의해 제도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한 것이지 갑자기 제도화된 것이 아니다(Fernandez Cabrera 2012, 50).

중요한 의미는 차베스 체제가 가난한 대중의 주거권을 개인소유의 자본주

의적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 소유권”을 중시하는 대중의 연대적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동네공동체 즉, 대중의 요구를 도시토지위원회를 통해 제도화시켰다는 데 있다. 약간 과장되게 언급한다면 차베스 체제가 지속 가능한 이유도 동네공동체가 훼손⁶⁾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동체의 지속성이 가능한 맥락은 동네공동체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영토성’ 때문이다(Fernandez Cabrera 2012).

여기서 말하는 영토성이란 모든 시설과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동네에서의 일상생활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서로 불만이 공유되고 사회화되면서 집단적 여론과 공동의 행동이 일어나는 맥락을 가리킨다. 즉, 대중의 감성적 또는 정서적 공동체의 일상생활이 아주 강한 집단적 연대성으로 발전되어 간 것이다(Fernandez Cabrera 2014, 128). 구체적 예를 든다면 집의 어느 부분이 고장 나면 우리는 집을 수리하는 기술자 또는 수선공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킨다면 이들 도시빈민 동네에서는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여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런 연대가 더욱 나아가면 경제위기 시에, 서로 물물교환(trueque)의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춤과 음악 등 독특한 일상생활의 방식 즉 집단적 에토스가 동질화되어있고 반면에 중상층 이상과 기득권층의 일상생활의 방식과 뚜렷하게 차별화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도시 빈민 주거지역의 영토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엘리트 지배계층이 무시하는 가난한 동네의 이미지와 같이 그곳이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따라서 국가에 의해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곳에는 시장 친화적, 자유주의적 가치와는 다른 독특한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동네는 혼란도 무질서도 아니고 무절제한 확장도 아니고 어떤 기획에 부응한

6) 이해 비해 우리사회는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로 인해 빈민 집단 주거지역을 밀어냈다. “한국의 빈곤 비율은 약 17% 수준이다. 중위소득 50%이하 일 때 빈자로 분류되는데 [...] 왜 우리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나? 한국에는 미국 남미 유럽 등에 현존하는 슬럼이 없다. 도시 개발이 이들을 몰아냈다. 빈민촌의 거의 전부를 도시에서 밀어냈기 때문이다”(안수찬 2015, 1).

Cabrera 2012, 58).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집을 짓고 주택 매입의 시장구조의 밖에 사는 셈이다. 가난한 대중이 스스로 주택을 건설한 것이 국가와 시장(민간) 부문이 합친 것보다 7배 많다(Fernandez Cabrera 2012, 64).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 발전하면 특히 주거차원에서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르페브르(2011, 12)에 의하면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는 주거행위 속에서 사회적 삶의 퇴화를 정당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시 빈민 대중은 대부분 시골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인데 동네에서도 강한 사회적 연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공업부문에 취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행상 등의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로서⁷⁾ 교환가치가 기준이 되는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위기 시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사회적 연대’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쉬운지도 모른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공동의 집단적 기억이 저장되어있는 ‘장소’의 사회문화적 가치이다.⁸⁾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빈민 대중이 일정한 동네에 집단적으로 모여 살아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공간이용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경찰 등 공권력이 이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퇴거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 특유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면 아마도 베네수엘라는 계급갈등이 첨예하지 않았던 것 같다.⁹⁾ 빈민 대중 스스로에 의한 동네공동체는 차베스

7) 헨리 벨트마이어나 제임스 페트라스(2012, 177-189)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대중은 자본주의 공업에 의해 흡수된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슬럼화된 도시에서 행상 등에 종사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가 되었다. 이들은 생산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고 비규범적이고 법적 계약의 보호가 없는 임시노동 또는 자기-고용에 노출되기도 했다.

8) 아르투로 에스코바르(2000, 115)에 의하면, ‘장소’의 재규정의 의미는 비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 살아있는 로컬의 문화를 방어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 자본, 근대성의 지배에 반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9) 스티브 엘너에 의하면, 1936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형은 계급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게릴라도 정부 탄압도 극단적이지 않았다. 막대한 석유가 재정자원으로 확고했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일상생활의 비공식성 때문

정부에 의해 주민평의회와 도시토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제도로써 흡수되었다. 그리고 주민평의회와 도시토지위원회의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양쪽 다 같은 구성원으로 중첩된다. 중요한 것은 주민총회(asamblea vecinal)로서 위의 사회운동조직들 외에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는 비조직화된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중요한 사회 공간적 사안들을 결정한다는 점이다.(Jungemann 2015. 3. 31 이메일 인터뷰)

IV. 도시토지위원회 출현의 사회문화적 맥락: ‘동네’의 ‘영토성’

라틴아메리카는 16세기 정복 초기부터 도시를 격자형으로 구획하는 기하학적 공간을 위주로 한 도시계획이 매우 발달되었다. 이런 도시계획은 “경제적 목적을 위한 폭력에 의한 사회적 공간의 생산”(르페브르 2011, 240)을 의미하고 “서유럽에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탈과 약탈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르페브르 2011, 241). 1980년대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대중의 주거공간의 ‘합법화’와 ‘양성화’를 통해 동네를 도시에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편입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적 노력이 국제 금융기구 등에 의해 추진되던 시기이다(Fernandez Cabrera 2012, 60).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는 빈민 대중이 거주하는 동네공동체에서 이런 도시계획의 흐름을 거부한다. 오히려 1980-90년대에 걸쳐 이들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장소’를 지키기 위해 동네를 몰아내려는 조치에 대해 집단적으로 투쟁했다.¹⁰⁾

동네를 마치 ‘영토’처럼 지키는 힘이 가난한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집단적 의식과 기본적 삶의 공간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도시 빈곤 대중의 사회운동으로 이끈 것이다(Fernandez Cabrera 2012,

에 사회적 차별도 온순했다. 1958년 민주화이후에도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컸고 계급갈등이 첨예하지 않았다(Ellner 2008, 7-8).

10) 1980-90년대에 걸쳐, 이 같은 최소한도의 삶의 장소를 지키려는 도시 빈민에 의한 집단적 투쟁은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같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펼쳐졌다.

50). 그리하여 ‘동네공동체’라는 사회조직이 형성된다. 그리고 물, 전기 등 주거권과 관계되는 국내외의 다양한 투쟁들과 연대¹¹⁾ 하면서 유기적인 사회운동으로 점점 발전한다.¹²⁾

그렇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사는 관례로, 전기, 물, 보건, 교육, 쓰레기 수거 등 기본적인 시민적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차베스 정부는 도시빈민의 토지소유의 합법화, 거주시설의 배려, 더 탄탄한 법적 기초의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안 도출을 위한 공공적 토론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토지위원회(C.T.U)를 제도화하기 위해 2002년 법률 제1666호를 공포했다. 각각의 도시토지위원회는 200가구 이상을 넘지 않는데 도시토지위원회가 가지는 기능 중 중요한 것은 주민총회이다. 이 주민총회는 기존의 동네공동체의 기능을 제도화시킨 것으로 거주지 소유를 인정하고 나아가 공간적 기능 외에 사회적, 공동체적 ‘자기 통치’와 도시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획의 차원에서 “도시 토지 소유의 합법화를 위한 전국 사무국”(Oficina Técnica Nacional para la Regularización de la Tenencia de la Tierra Urbana)을 설립했다. 처음에 부통령 직속이었다가 현재는 “도시 토지 기구(Instituto de Tierras Urbanas)”로 바뀌는 중에 있다(Fernandez Cabrera 2012, 61-62). 토지소유의 합법화는 2007년 현재, 약 52만의 가구에 약 35만 개의 토지 소유권을 합법화하여 등기를 하도록 했다(Colau 2007, 3). 이 숫자를 보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집단적 또는 사회적 소유권(Fernandez Cabrera 2012, 63)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도시토지위원회의 회의를 관찰해보면 도시 토지

-
- 11) 예를 들어, 2007년의 제 3차 도시토지위원회 전국 총회에 라틴아메리카 세입자 및 점유자 운동(MOI), 아르헨티나의 토지와 주택연맹(FTV), 우루과이의 상호 협력을 위한 주택 조합 통합연맹(FUCVAM), 라틴아메리카 대중 주택사무국 등이 옵서버로 참여했다(Colau 2007, 1).
- 12) 예를 들어, 카라카스 변두리의 페타레(Petaré)에 사는 동네 주민들이 1999년 5월에 약 6개 월 전부터 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간선도로를 점거하고 시위하는 경우도 있었다(Lopez Maya 2002, 92).

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공공적 기획을 하고 공개적 숙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1999년 헌법 제2조에 보장되어있는 주거권의 민주화를 위한 대중의 요구가 국가에 제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주 카라카스 시 단위에서 도시토지위원회의 연합총회가 열렸다(Fernandez Cabrera 2012, 62).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논리 밖에서 주민평의회 등 다른 조직과 연대하여 집단적 자기 건축을 하고 ‘공동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집단적 주체가 출현한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은 동네를 그들 자신의 가치와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도시를 민주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쌓여 2006년 도시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다(Fernandez Cabrera 2012, 63). 이 같은 도시토지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성과들은 단지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한 도시빈민 외에 주택문제를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그룹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¹³⁾ 또한, 주거권을 지키려는 도시 토지위원회 외에, 건강, 교육, 스포츠 등의 공동체 활동이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션사업과도 연계되어있다.¹⁴⁾

도시토지위원회의 지속적인 투쟁 덕분에 2006년 토지 소유의 합법화를 위한 특별법(Ley Especial de Regularización Integral de la Tenencia de la Tierra de los Asentamientos Urbanos Populares)을 공포시켰다.

차베스 혁명 이전의 1980-90년대의 정부들은 효율성을 내세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공공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시민 됨” 즉, 일반 시민들이 공공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민성의 기초”(Maingon

13) 예를 들어, Movimiento de Pioneros(무주택자 운동), Red Metropolitana de Inquilinos y Arrendatarios(세입자 도시연대), Organización de las Trabajadoras y Trabajadores Residenciales(콘도 근무자 조직), Movimiento de Ocupantes de Edificios Organizados de Venezuela(베네수엘라 건물 점유자 운동) 등이다. 세입자들을 위한 강제퇴거 보호의 조치는 2009년 3월 시 행정조례에 의해 그리고 2011년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주택 건설을 위해 유휴 토지 또는 빈 건물의 획득과 공동체 형성이 지원되고 다른 조직과의 연대 및 “라틴아메리카 대중 주택위원회”(Secretaria Latinoamericana de la Vivienda Popular)의 협조를 지원했다(Fernandez Cabrera 2012, 65-66).

14) 2009년 현재, 물위원회 6,600개, 도시토지위원회 6,740개, 공동체 은행 3,600개, 정보통신위원회 472개, 주민평의회는 27,000개이다(Fernandez Cabrera 2011, 52).

2004, 53)를 허물게 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후퇴 또는 ‘시민 참여의 후퇴’로 이어진 것이다.

가난한 대중이 집단적 주체로 출현하게 된 구체적 맥락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들 가난한 대중은 ‘자기-고용’의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의미한다. ‘비공식’이란 의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편입되어 ‘자본’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행상, 노점상 등 지하경제의 노동을 하며 생존한다는 뜻이다. 즉, 이들은 근대성과 시민의 ‘규율’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다.¹⁵⁾ 원래 이들은 전부터 많았지만 1980년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더욱 많이 늘어났다(Lopez Maya 2002, 131). 이들에 대해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당국은 판매를 위한 토지를 제공하며 이를 허용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행상, 노점상 등의 활동을 당국이 제약할 때 이들은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데 이때 노동권과 시민의 기초적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한다. 이들은 국가에 대해 일반 산업체에서의 노동을 요구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행상마저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한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지만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비공식부문 노동을 통해 가난한 대중에게 값싼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대중에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어떤 자부심을 인식한다. 또는 비공식노동자들도 공식적으로 가게를 가지고 세금도 내는 활동을 하고 싶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구조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일부의 기득권층만 독점적 수입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들과 품질 좋은 상품으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Lopez Maya 2002, 132-135). 이 같은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은 차베스 체제 이전의 1958년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가 끼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불법 점유한 토지에서의 거주권의 주장을 강조하는 어느 주민은 그 거주권의 원류가 오랜 식민지시대 이전의 원주민의 권리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

15) 그렇다고 이들이 한병철이 『피로사회』에서 얘기한 대로 규율사회를 벗어나 탈근대적 성과사회의 주체들이 되었다는 맥락은 아니다.

장하기도 한다(Lopez Maya 2002, 150). 이런 주민의 주장에서 우리는 이들 평범한 대중이 자신들의 평등에 대한 이상이 원주민적 맥락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근대 자유주의적 또는 전통적 대의민주주의의 매개 방식인 정당과 노조 대신에 대중의 ‘영토’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Fernandez Cabrera 2011, 36-37). 그런데 이들 가난한 대중이 신자유주의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는 데 대해 왜 즉각적으로 연대를 강화하는지 그 문화적 조건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인가 개인 생활을 신성시하는 유럽의 자유주의적 문화와 그 맥락이 다른 것 같다.¹⁶⁾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 같은 집단적 주체의 작은 움직임이 향후 차베스 정부의 집권과 함께 현실적으로 베네수엘라 사회의 권력관계를 바꾸어놓기 시작한 것이다(Fernandez Cabrera 2011, 36). 차베스 집권 이전에 권력관계 또는 사회관계의 변혁은 대중에 의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둘째, 8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지방분권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사회정책 또는 공공정책의 상당 부분이 시민사회의 조직된 공동체에 이양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공동체 조직은 지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대표기관과 직접 접촉하게 된 것이다(Maingon 2004, 53). 차베스 혁명은 이들 집단적 주체로 출현한 ‘대중’에게 정책 기획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대중 권력’을 부여하게 되고 그 권력의 실현 경로로 주민평의회와 도시토지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이제 대중은 사회적, 집단적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정치,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16)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의 급진좌파세력의 성장과 연대성이 강한 사회운동의 출현을 단순히 신자유주의를 반대해서라고 설명하는 것은 절반의 설명에 그친다고 본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이 다른 맥락(개인주의, 자유주의 문화대신에 공동성과 사회적 연대가 강한 문화)을 가지고 있음을 유럽중심적, 보편적 지식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다른’ 맥락에 기초한 새로운 인식론적 담론이 1990년대 이후 아니발 까하노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출현한 “근대성/(탈) 식민성”기획이다.

도입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기득권층과 중간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데 그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중의 요구를 지켜줄 수 있는 “공공영역의 재구성과 확장”(Lopez-Valladares 2008, 561)이 매우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다. 이를 인식한 차베스 및 측근 그룹들은 헌법을 새로 제정하여 “시민의 주인공적 참여”¹⁷⁾의 문제의식을 새롭게 헌법안에 제도화(헌법 제3조, 제168조, 제184조) 시키기로 한 것이고 그 결과 출현한 것이 주민평의회와 미션, 도시토지위원회 등의 공공정책의 급진적 변혁의 재구성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일종의 시혜적 조치로 인식되던 사회정책 또는 공공정책을 광범한 대중에게 그들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시키려는 체제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80-90년대에 빈민 대중은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다. 이들은 일반인들과 분리된 산동네 같은 곳에 산다. 스스로 집을 짓고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일종의 ‘영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임을 인식하고 집단적 사회적 주체로 출현한 것이다.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그들의 토지를 지키기 위한 오랜 투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인간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노조 또는 정당에 기대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범주 바깥에서 그들 스스로의 방법으로 생존한다. 이 같은 대중의 ‘영토성’은 근대적 총체성, 보편주의, 합리주의를 해체, 단절시키고 자신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 즉, 하위 주체적 문화를 가지고 시민 사회의 다른 부문의 논리와 대결하고 저항하며 산다. 무엇보다 가난하지만 ‘축제’적 정신을 가지고 산다(살사, 메렝게, 바예나또, 란체라, 락, 힙합, 볼레로 음악을 즐기며). 그

17)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2007년에 발간한 책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의 베네수엘라 헌법조문의 한글 번역에는 대부분 ‘국민’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학자들의 논문에는 “시민의 참여” 또는 “대중의 의지” 등으로 되어있어 뉘앙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국민주의의 의미가 배어있어 시민 또는 대중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리고 생존하기 위해 서로 연대하는 방법을 안다(Fernandez Cabrera 2011, 48).

이들 대중이 신나는 댄스음악을 즐기며 그들만의 ‘영토성’을 가지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자신들의 독특한 투쟁과 연대적 삶의 방식에 대해 ‘집단적으로’ 음악과 춤을 통해, 즉, 몸으로 ‘공동적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논리나 이성이 아닌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오래가고 강력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중의 정치적 행동과 문화적, 정서적 공감성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부족한 것에 대한 공통의 주제적 인식이 공공적 실천과 행동의 잠재력을 만든다. 대중의 정치적 행동의 기저에는 공공적인 것을 다루는 문화적 스타일에 육화된 정서, 감정과 깊이 연계되어있다. 왜냐하면 대중이 사는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공동체적 가치관과 신앙과 상상력을 강화시키는 자연적인 정치적 사회화의 핵심이 발전해왔기 때문이다.(Fernandez Cabrera 2014, 129)

다른 말로 표현하면, 라틴아메리카의 소수 엘리트 그룹이 아닌 일반 대중은 유럽 중심적, 합리주의적, 개인주의적 시민성의 정서를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개인주의적 시민성에 저항하고 가난한 빈민 대중이 그들의 문화적 소수성을 지키고 사회적, 공동체적 연대와 저항의 정신, 인민주권의 이상을 가지는 집단적 주체가 출현하게 된 것은 모두 과거로부터의 ‘기억의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다.¹⁸⁾

집단적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는 것은 과거의 부정의가 해결되지 않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때 그 부정의가 대를 이어 지속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중의 강력한 요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문화적 소수성(하위문화)의 방

18) 이 논문의 사회학적 흐름과 다른 맥락이지만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에서 지적하는 공동체적 연대와 기억의 뿌리도 작품 초반부에 은유적으로 나오듯이 ‘일주민 문화’와 연결된다. 또는 1990년대 이후의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부들의 출현도 바로 ‘백년의 고독’에서 강한 ‘사회적 연대’(구체적 예: 세계 사회포럼)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Monedero 2005, 19). 또는 아르헨티나가 군부독재(1976-1983)의 인권탄압 시기 고문, 처형 등의 장소로 쓰였던 해군 기관학교를 역사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도 모두 ‘기억의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어, 잃어버린 역사의 회복, 문화적 발흥의 영감, 사회적 공동체적 연대의 정당성, 독재에 대항하는 저항의 영감 그리고 대중(인민) 주권과 집단적 행동의 이상 등은 기억의 정치의 다양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Contreras 2003, 43).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맥락에서 그 무의식적 공동체적 ‘기억’은 원주민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둔 집단적, 공동체적 연대에 닿아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¹⁹⁾ 하지만 이런 언술은 베네수엘라 대중의 과거의 삶이 직접적으로 원주민과 연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중심 종족인 메스티소의 ‘어머니’가 식민 초기의 ‘원주민’이었다는 점에서 문화적 상상력의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대중은 집단 무의식의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맥락의 사회정책의 축소와 배제에 대해 즉각 저항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미 동네공동체를 통해 합리주의적 근대성과 다른 ‘축제화’된 일상생활의 삶의 방식을 몸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자생존의 경쟁과 자기 계발에 녹아있는 근대성의 삶의 방식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중이 포섭되어있었다면 억압과 배제를 견디어내기 힘들고 즉각적인 저항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대중은 집단적으로 ‘동네’에 모여 살면서 일상적으로 동네를 자신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작동하는 ‘사회적 영토’로 인식하고 불평등과 분리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다. 즉, 동네를 “영토적 근거지로 하여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대중의 정치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Fernandez Cabrera 2012, 74). 이런 그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에 대한 애착 즉, ‘영토성’이 근대적 준거로 보아 불법임에 틀림없는 거주방식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주거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차베스 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또 다른 빈민 주거권의 실

19) 2015년 5월 15일 한신대와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공동개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김은중의 논문 “도래할 공동체? 안데스 코뮤주의”와 김향섭의 논문 “안데스 원주민 운동과 토지 문제: 에콰도르 사례를 중심으로”는 안데스 원주민 운동이 가지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비전과 전망이 사회주의의 혁신 또는 민주주의의 급진화 담론 모색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힘인 “베네수엘라 주택 미션 사업”(GMVV)에 의한 수재민 등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상 아파트를 중간계급이 거주하는 지역 바로 옆에 건설하였을 때, 그리고 학교, 운동장, 공원, 파출소, 목공소 등을 건설하였을 때 인접한 거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이 주목된다(Fernandez Cabrera 2013, 136-154). 수재민이 원래 살던 출신 지역에서 벗어나 중간계급의 거주지 바로 옆에 이주함으로써 서로 다른 주민들의 삶의 방식 즉, ‘영토성’이 달라 갈등이 일어났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토성은 사회관계와 밀접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 계층에 따른 사회 공간의 분리가 일반적인데 이런 오랜 틀을 깨트리는 데 대해 중간계급 이상의 반발과 갈등이 컸다.

이렇게 도시토지위원회를 통해 표현된 도시 빈민 대중의 일상적 삶의 방식인 영토성은 집단 정서적으로 ‘바로크적 에토스’로 호명할 수 있다.²⁰⁾ 포르투갈의 사회학자인 보아벤투라 데 소우사 산토스는 바로크적 에토스를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원형적(arquetípico) 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Salazar de la Torre 2009, 86).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인식론은 서구적인 이분법이 아니라 ‘메스티소적(혼종적)인 것’에 있고 라틴아메리카를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즉, 평등의 이상으로 전진시켜온 동력은 논리와 이성 즉,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크적 에토스이고 이 정서적, 또는 정동적 힘은 근대국가의 민족주의의 틀과 근대성을 넘어 ‘코스모폴리탄적 인권’이라는 새로운 자연법을 지향한다. 바로 이런 힘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대안 세계를 추구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의 기초가 된 것이다.

20) 17세기 유럽(스페인)의 미학적 코드인 바로크는 “불규칙하고 기이하고 과잉적이고 원심력적인 것을 암시하는 비유적 형식을 의미한다”(Figueroa Sanchez 2008, 11). 세르반테스와 고야의 작품에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60-70년대 소설의 미학을 ‘네오바로크’로 규정한다. 네오바로크는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근대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응한 미학적 코드로서 초월적인 것과 물질적(현실적)인 것 사이의 긴장적 공존을 지향한다. 그리고 삶과 문화의 전복적인 ‘카니발화’를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궤적을 돌아보면, 그 문화적 의식인 **바로크적 에토스**는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주체성을 재구성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반헤게모니적 또는 대안적 세계화의 도전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정치적 문화의 요구는 대중의 일상적 경험에 뿌리내리고 있다. 또한, 기층 대중을 포용하는 복합문화적, 탈근대, 탈식민적, 코스모폴리탄적 새로운 “자연법”의 출현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De Sousa Santos 2008, 34. 필자 강조)

예를 들어, 도시와 차별되는 동네에 살면서도 위축되지 않고 도시와 동등한 기본적인 주거권을 요구하면서도 근대성의 개인주의적 틀을 넘어 공동체적, 집단적 소유권을 주장했고, 자본주의 안에 살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이분법적 행동의 틀을 넘어서는 일상적 삶의 방식 즉 바로크적 에토스를 드러낸다.

보아벤투라 데 소우사 산토스에 의하면, 20세기 말부터 특히 사회적 통제가 약하고 해방의 실천이 미약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근대성의 이중 위기에 처해있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근대성의 자본주의적 기획은 부분적으로만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동체적 원칙이 약화되면서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상존하고 있다. 이제 보편적 지식의 유일하고 정당한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근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할 새로운 유토피아적 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원래 라틴아메리카 대중에게 있어온 유토피아적 능력을 가진 주체성의 유효한 제안 즉, 자본주의를 내면화하면서도 그것의 파괴적 힘을 인식하여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비판적 담론의 제안인 **바로크적 에토스**의 실천이 중요하게 되었다.(Figuroa Sanchez 2008, 259. 필자 강조)

에콰도르의 철학자인 볼리바르 에체베리아(Bolívar Echeverría)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바로크적 에토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적 상황을 상호 공존시키는 능력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행동 양식”(Echeverría 2007, 1)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의 경쟁에서 패배자이면서도 자본주의를 긍정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일상 문화를 가리킨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이면서 동시에 토지의 불법적 점유에서 보듯이 ‘야만적’이기도 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르크스주의적 방식이

아닌 경로로 삶의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적 삶의 작동방식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을 대중이 지식인의 계몽적 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생활의 축제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저항과 거부 의 형식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제까지와 다른 대안적 정치적 구성의 씨앗이 대중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이런 도시 빈민 대중의 삶의 방식을 지켜내는 것은 자본주의적 문화에 의해 부여된 가치의 시장주의 논리 즉, 양적, 추상적 논리에 저항하는 것이기도 하다.

V. 도시 토지위원회의 출범: 사회권으로서 주거권의 요구에서 민주주의 급진화로

도시토지위원회 출범의 의미는 단지 생명의 유지를 위한 영토성의 보존에서 나아가 정치적, 상징적, 문화적 의미의 공간을 지키는 영토성의 보존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토지 소유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집단적 소유권’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통로에 도시 빈민 대중이 참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배제되어왔던 대상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출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관계의 맥락을 깨트리고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대중이 출현한 것이다. 2002년과 2006년 같은 해에 입법을 통해 제도화된 주민평의회와 함께 도시토지위원회는 서로 겹치면서도 일반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이데올로기적으로 급진적인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성의 자유주의적 또는 자본주의적 원칙인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 도시 계획과 구성의 범주를 벗어나 일종의 ‘다른’ 도시 또는 ‘사회주의적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이라고 해서 과거 소련에서의 현실 사회주의의 실험에서 처럼 국유화와 노동계급의 우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경제적 배제를 당한 가난한 대중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도시토지위원회의 출범과 투쟁을 통해 도시 외곽의 불법적, 집단적으로 토지

를 점유한 가난한 대중은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 공동체적, 사회적, 집단적 소유권을 주장했고 상당 부분 관철되었다.

그런데 대중의 주거권에 대해 사회적 소유권의 보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들이 도시토지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한다. 특히 코뮌주의의 실천이 주목되는데 다양한 코뮌적²¹⁾ 경제 주체가 작동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에도 토지의 ‘집단적 소유권’이 등기법상 인정되고 있다.²²⁾ 그리고 도시토지위원회를 포괄하는 더 넓은 전국적 연합조직으로 “베네수엘라 주민운동”(Movimiento de Pobladores de Venezuela)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도시빈민이 점유한 토지의 합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어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다.²³⁾

2002년 설립된 이후 그동안 작동한 도시토지위원회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 토지위원회의 핵심적 기구는 주민총회이다(Fernandez Cabrera 2012, 61).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도시 토지 소유의 합법화를 둘러싸고

21) 차베스 혁명의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실험으로 ‘코뮌’주의 운동과 조직이 많이 있으나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벗어나 상세한 언급을 자제한다.

22) 예를 들어, 2011년 법률 8143의 “베네수엘라 주택 미션사업의 주택 소유권 체제법”(Ley de Régimen de Propiedad de las Viviendas de la Gran Misión Vivienda Venezuela)이 있다. 이 법에서 규정된 대로, 대통령령에 의해 새로이 유흥지 등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유상물수의 방법을 통해 국가가 형성한 토지에 대해 “다가구” 소유의 개념이 주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졌고 무상이다. 주로 2010년의 수해로 집을 잃은 수재민 약 2만 3천 가구 중 2013년 현재, 만3천 가구가 수혜자였다(Fernandez Cabrera 2013, 137). 또 다른 예는, 2008년 법률 6130의 “대중경제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Economía Popular)이 있다. 코뮌적 또는 직접적 사회적 소유권과 간접적 사회적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사회적 소유기업’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생산수단의 소유는 집단소유이다. 후자는 명목상으로 집단의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 생산수단의 소유는 국가가 가지는 ‘사회적 소유기업’을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 경우에도 생산수단을 집단 소유로 넘길 것이다(Jungemann 2015.5.18일 이메일).

23) 주거용 토지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UN의 1996년 아비타트 국제회의와 1990년대 이후 미주 개발은행 등의 국제 금융기구들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Fernandez Cabrera 2012, 60). 예를 들어, 페루의 경제학자인 에르난도 데 소토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는 합법화시켜주어야 할 자본”(Fernandez Cabrera 2012, 60 재인용)이라고 하며 일단 합법화되고 나면 주민들이 세금을 내게 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공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벌인 것을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대중의 요구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받았고 주거권에 대한 개별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대해 그들의 집단적 요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집단적 ‘자기 건축’과 토지 소유에 대한 ‘사회적 재산권’이 인정되면서 자유주의적 규범이 적용되는 도시와 대비하여 동네의 공동체적 정체성이 인정된 것이다(Fernandez Cabrera 2012, 63).

그리고 주거권에 대한 체계적 권리 주장을 위해 “아비타트 변혁을 위한 참여 센터”(Centro de Participación en la Transformación del Habitat) 건립을 이끌어낸다. 이 센터 설립의 의미는 단순히 토지 소유의 합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민주주의화시키는(democratizar la ciudad)” 것이다. ‘도시의 민주주의화’란 의미는 자본과 이윤의 원리에 의해 빈민가에는 제대로 된 교육, 보건, 여가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차원에서 총체적 공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도시토지위원회가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벌인 토지 소유의 합법화 투쟁의 핵심은 토지 소유권의 ‘민주주의화’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2011년 특별법을 통해, 토지의 집단적(사회적)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동네의 총체적 변화와 함께 도시의 민주주의화, 즉, 도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Fernandez Cabrera 2012, 63).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네’가 ‘도시’에 비해 배제당해 왔던 그동안의 사회관계를 변혁하여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게 됨을 말한다.

이런 투쟁이 가능하게 된 맥락은 도시 빈민가에 모여 살던 가난한 대중의 “동네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공적 공간”을 출현시킨 덕분이다.

아렌트에 의하면 시민성을 위해서는 “공공적 공간”이 필수적이다. 아렌트에 게 공공적 공간은 구성원들이 시민들이 서로 말하고 설득하고 그들의 독특한 집단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통의 사안에 대해 집단적 대응을 결정하는 공간

을 의미한다. 공공적 공간은 공통의 서로 나누는 세계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상호성과 연대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공간의 출현이 조건이다. 이 공간이 있어야 시민성의 활동이 활발해진다.(Mouffe 1992, 146)

도시토지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이제는 동네가 도시 계획에서 배제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 ‘자기 생산(autogestión)’되는 ‘영토’로서 민주주의의 급진화의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도시를 민주주의화 시키는 것은 도시의 일부 주민이라도 차별적으로 배제될 수 없고 도시 정책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로써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책 기획안에 모든 거주지 주민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어 아비타트 즉, 주거권의 종합적 변혁이 추진된다(Fernandez Cabrera 2012, 63-64). 구체적으로 1) 토지의 민주화, 2) 동네의 종합적 변혁과 대중적 도시화, 3) 새로운 주거지의 건설과 기획과 활동의 공동체적 조직화 등이다(Fernandez Cabrera 2012, 67). 이렇게 도시토지위원회는 공동체적 참여의 기획을 위한 세미나와 조합 운동적 상호 협력의 실습을 실행하는데 그 구호는 “이해하기 위해 조직하고 제안하기 위해 이해하고 변혁하기 위해 제안하기”(Fernandez Cabrera 2012, 67)이다. 이런 노력이 지향하는 것은 국가 공무원에 의한 대중 운동의 감독과 지도로부터의 단절 즉, ‘자기 통치’의 대중권력의 강화이고 집단적 소유권의 보장과 주거권을 위한 대안적 정책과 행동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무엇보다도 도시토지위원회는 공동체적, 대중적 토지 등기 대장(Catastro Comunitario y Popular)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시 행정당국은 일부의 예외²⁴⁾를 제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Madera 2010, Fernandez Cabrera 2012, 70 재인용). 이런 흐름을 통해 대중이 새로운 집단적, 정치적 주체로 출현하는 것이다. 도시토지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일정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의 정당성은 공동체의 주민 총회

24) 레온 드로스 블랑코(Leon Droz Blanco) 동네의 경우 ‘집단적’ 토지 소유권의 등기를 획득하고 있다(Fernandez Cabrera 2012, 71).

에 속해있음을 밝힌다. 즉 우리는 공동적 영토의 조직이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국제관계²⁵⁾도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리더십은 동네, 지역, 전국 대변인을 통해 구현된다. 우리는 몇 해에 걸쳐 사회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고 반혁명과 개인주의적 정치 기획의 공세 앞에 ‘자율’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가난한 주민들은 아무런 경제적 지원과 법률적 안전장치 없이 국가와 시장부문이 합친 것보다 7배나 많이 주택을 건설했다. 거기에서 동네가 출현한 것이다. 이 같은 능력을 우리는 ‘자기 통치’(autogestion)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조국은 동네와 마을, 공동체에서 출현한다. 오늘날 우리는 법적 주체를 넘어 정치적 주체임을 인식한다.(Comités de Tierras Urbanas 2008, Fernandez Cabrera 2012, 64 재인용)

도시토지위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 전통적으로 토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자본의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난한 대중을 배제하는 국가 도시 계획의 사회적 공간적 기획의 동력을 해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도시토지위원회가 문제제기한 중요한 점은 우선 정부가 대중 주거지의 토지 소유권 합법화의 문제에 개혁적으로 대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최소한도의 주거 환경의 확보, 주거권의 요구와 제안, 해결책 강구, 토지 소유 등의 문제에 ‘집단지적’ 개념을 적용하도록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배제되어왔던 ‘동네’가 도시에 포용되도록 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네가 정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토지 소유 행정을 둘러싼 관료주의에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미션 주택(Misión Vivienda)사업에 도시토지위원회가 참여하고 있고 홍수로 인한 수재민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특히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한 취득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도시토지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정부에 합

25) 주거권의 공동체적 보장을 위한 국제 연대의 사례로 SeLVIP, 브라질의 UNMP, 아르헨티나의 MOI, 우루과이의 Fucvam 등과 연대하고 있다(Fernandez Cabrera 2012, 70).

리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09년 “사회발전 위원회”에 구체적 제안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2011년 특별법이 공포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도시토지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카라카스 등지에 있는 약 9,300 평방미터의 유희지를 임시로 점유할 수 있는 허가와 수재민을 포함한 조직된 무주택자들이 스스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비용 3천9백만 볼리바르를 지원받기에 이르렀다(Fernandez Cabrera 2012, 72).

도시토지위원회가 제도화된 2002년부터 이후의 과정을 둘러보면, 초기에 자신들의 삶의 장소를 지키려는 ‘생명적 영토성’에서 발전하여 도시 정책 형성에 대중의 더 많은 참여를 국가에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급진화의 개념으로 발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중의 ‘자기 통치’가 작동되는 사회의 구성이라는 비전에서 볼 때,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성찰적 대안 제시를 하는 집단적 주체로 출현했다는 점이 도시토지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 (Fernandez Cabrera 2012, 71). 그러므로 차베스 정부에 의한 제도화의 업적보다 이미 1980년대부터 도시 빈민 대중 스스로에 의한 새로운 집단적 주체가 출현할 수 있었던 독특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VI. 나가는 말

신자유주의 시대에 세계체제의 많은 주변부 나라들에서 가난한 대중이 ‘타자’로 차별, 배제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의 체제에서 도시 빈민 대중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시혜적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 이와 달리 베네수엘라의 동네공동체와 도시토지위원회의 실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개인적으로 적자 생존해야 하는 경쟁주의와 시장 위주의 근대성 또는 신자유주의의 사회구조에서 집단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베네수엘라의 도시 빈민 대중은 서로 도와 집을 짓고 유희 공유지 또는 사유지의 빈터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권을 국가에 요구했다. 요구의 핵심은 그들의 공동체적 문화에 근거하여 ‘집단적 토지 소유

권'을 요구하였고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관철되었다. 물론 1999년 이후 집권한 차베스 정부가 대중의 요구를 제도 차원에서 급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대중이 1980년대의 사회경제적 위기에서 집단적으로 항의하며 주거권에 대한 투쟁을 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1980년대에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 대중이 출현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도시토지위원회라는 제도적 조직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이들 도시 빈민 대중은 집단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 또는 주체로서 출현하여 국가의 민주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집단적 주체로 출현하게 된 역사적 맥락이 1980년대, 즉, 베네수엘라에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으로 말미암아 공공정책 또는 사회정책이 축소되던 시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위기 상황을 접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반체제모니적 가능성을 객관적, 인식론적 담론의 수준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이들 빈민 대중의 일상생활에서의 집단적 의식 또는 주관적, 문화적 맥락에 주목함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도시빈민 대중의 독특한 공동체적이고 연대적 문화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의 사회관계를 마치 '영토'처럼 지키려는 것, 즉, '영토성'이 도시토지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현하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동력이다. 즉, 불법적으로 점유했지만 주거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집단적 소유권을 요구하고 관철한 경험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살기 때문에 이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적 작동방식을 거부하고 이를 넘어서려는 일상적 삶의 방식인 '바로크적 에토스'를 보여준다. 특히, 열대 음악과 신나는 춤 등 '축제화'된 일상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동질화시키고 있다. 중간계급 이상의 시민들의 에토스와 다른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이런 경험은, 대중이 '우리'가 되고 중간계급과 기득권 계급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거꾸로 '타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리고 기존의 시민사회, 국가, 정치사회, 대중, 서발틴(하위주체) 등의 다양한

사회과학적 개념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론적 영감을 준다. 대안적 담론의 연구에 있어 흔히 서구의 철학자, 사회학자들의 대안적 담론을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구체적인 장소에 기초한 역사적 체험의 맥락 안으로 들어가 문화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무엇보다, 사회변혁의 전략적 차원에서 구조적 변혁과 주체의 변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대중 스스로가 독립적 주체가 되어 그들의 독특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지키는 데서부터 변혁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병권 외(2007),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 창.
- 김은중(2015), 「도래할 공동체? 안데스 코문주의」, 한국 신학대학교-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공동심포지움.
- 김항섭(2015), 「안데스 원주민 운동과 토지 문제: 에콰도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신학대학교-서울대라틴아메리카 연구소 공동 심포지움.
- 안수찬(2015), 「빈곤청년들이 보수가 되는 이유」, 오늘의 유머.
- 앙리 르페브르(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에코 리브르.
- 이진경(2008),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과잉-제국주의」, 이진경 외,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그린비, pp. 46-73.
- 자크 랑시에르(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 한병철(2010),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 헨리 벨트마이어/제임스 페트라스(2012),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구조와 변화」, 쟌 니퍼스 블랙(번역),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옮김, 『라틴아메리카 문제와 전망』, 이담북스, pp. 177-206.
- Antillano, A.(2010), “Caracas: cuando la ciudad excluye al barrio,” *construccion.com*, www.enconstruccion.com.ar/78-de-noviembre-Dia-Mundial-del.1133
- Boudin, Chesa et al.(2006), *Venezuelan Revolution*, New York: Thunder Mouth Press.
- Burbach, Roger and Piñeiro, Camila(2007), “Venezuela’s Participatory Soci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Vol. 21, No. 3, pp. 181-200.

Canache, Damaris(2004), “Urban Poor and Political Order,” Jennifer L. McCoy & David J. Myers(ed.), *The Unravel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Venezuel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pp. 33-49.

Colau, Ada(2007), “Los Comités de Tierras Urbanas y el proceso de regularización de tierras en Venezuela,” *Datos de la Oficina Técnica Nacional para la Regularización de la Tierra Urbana*, pp. 1-3.

Contreras, Miguel Angel(2003), “Impensando la ciudadanía moderna: alteridad y racismo en el sistema mundial,” *Cuadernos del CENDES*, año 20, no. 54, pp. 29-54.

Chatterjee, Partha(2011), “La política de los gobernados,” *Revista Colombiana de Antropología*, vol. 47(2), pp. 199-231.

De Sousa Santos, Boaventura(2008), “Nuestra América. Hegemonía y Contrahegemonía en el siglo XXI,” <http://sala.clacso.edu.ar/gsd1252/cgi-bin/library?e=q-000-00—0busca%2csecre.>, (2011.1.28일 출력), pp. 1-39.

D’Elia, Yolanda(2013), “El derecho a la participación y las Asambleas de Ciudadanos y Ciudadanas,”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Oficina en Venezuela de la Fundación Friedrich Ebert, Caracas, pp. 1-15.

Echeverría, Bolívar(2007), “El descontento se está dando en los usos y costumbres de la vida cotidiana,” entrevista con Javier Sigüenza de *Periódico Diagonal*, <https://www.diagonalperiodico.net/print/culturas/descontento-se-esta-dando-usos-y-costumbres-la-vida-cotidiana.html> (2015.5.6 출력), pp. 1-3.

Ellner, Steve(2008), *Rethinking Venezuelan Politics*, Boulder: Lynne Rienner.

Escobar, Arturo(2000), “El lugar de la naturaleza y la naturaleza del lugar: ¿globalización o postdesarrollo?” Edgardo Lander(ed.),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Buenos Aires: CLACSO, pp. 113-143.

Fernandez Cabrera, Beatriz(2011), “Los consejos comunales: continuidades y rupturas,” *Cuadernos del CENDES*, año 28, no. 78, Caracas: UCV, pp. 35-65.

_____(2012), “Territorialidad, sujetos populares y nuevas resistencias a propósito de los Comités de Tierras Urbanas venezolanos,” *Cuadernos del CENDES*, año 29, no. 81, Caracas: UCV, pp. 49-78.

_____(2013), “La integración socio-territorial de los sectores populares a la ciudad: un proceso conflictivo. Caso del nuevo urbanismo popular La Limonera,” *Revista Venezolana de Análisis de Coyuntura*, vol. xix, no. 2, julio-dic. 2013, Caracas: UCV,

- pp. 129-157.
- _____(2014), “Lo territorial, lo subjetivo y lo político en el análisis de la configuración del sujeto popular,” *Cuadernos del CENDES*, año 31, no. 86, Caracas: UCV, pp. 119-137.
- Figueroa Sanchez, Cristo Rafael(2008), *Barroco y neobarroco en la narrativa hispanoamericana*, Medellín: Editorial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 Harnecker, Marta(2010), “Latin America and twenty-first century socialism: Inventing to avoid mistakes,” *Monthly Review*, Vol. 62, No. 3, pp. 3-83.
- Jungemann, Beate(2014), “Políticas públicas y participación popular en Venezuela,”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Quilmes*, no. 26, pp. 1-33.
- Laclau, Ernesto(2005), *La razón populista*. Buenos Aires: Cfe.
- _____(2009), “Laclau en debate: Postmarxismo, populismo, multitud y acontecimiento,” (entrevistado por Ricardo Camargo), *Revista de Ciencia Política*, vol. 29, no. 3, Pontificia Univ. Católica de Chile, pp. 815-828.
- Lopez Maya, Margarita(2002), *Protesta y cultura en Venezuela*, Buenos Aires: Clacso.
- _____(2005), *Del viernes negro al referendo revocatorio*, Caracas: Alfadil.
- Lopez-Valladares, Mirtha(2008), “Una estrategia de innovación política en Venezuela: los consejos comunales,” *Ra Ximhai*, vol. 4, no. 3, Universidad Autónoma Indígena de México, pp. 559-579.
- Maingon, Thais(2004), “Política social en Venezuela: 1999-2003,” *Cuadernos del CENDES*, vol.21, no. 55, pp. 47-73.
- Marchar, Oliver(2006), “En el nombre del pueblo la razón populista y el sujeto de lo político,” *Cuadernos del CENDES*, mayo-agosto, año/vol. 23, no. 062, Caracas: Univ. Central de Venezuela.
- Madera, H.(2010), “Los Comités de Tierras Urbanas en Caracas-Venezuela,” Ana Sugranyes y Charlotte Mathivet, (eds.), *Ciudades para tod@s por el derecho a la ciudad, propuestas y experiencias*, Santiago de Chile: Hábitat Internacional Coalition.
- Monedero, Juan Carlos(2005), “Conciencia de frontera: la teoría crítica posmoderna de Boaventura De Sousa Santos,” *Boaventura De Sousa Santos, El milenio huerfano*, Madrid: Trotta.
- Mouffe, Chantal(1992),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New York: Verso.
- _____(2000), *The democratic paradox*, New York: Verso.
- Parker, Dick(2005), “Chávez and the Search for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2, No. 2, pp. 39-49.

Rebotier, Julien(2010), “Planificación, gobernanza y vivienda en la Caracas democrática.

Contextualizar para comparar,” *Cuadernos del CENDES*, vol.27, no.75, pp. 1-22.

Salazar de la Torre, Cecilia(2009), “¿Ethos barroco o herencia clásica?” León Olivé et al.(eds.), *Pluralismo epistemológico*, La Paz: Clacso, pp. 85-116.

이메일 인터뷰

Beate Jungemann,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Caracas 사회학과 교수(2015.3.31)

_____,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Caracas 사회학과 교수(2015.5.18)

안 태 환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경남한신 아파트 109동 1002호
tomy30@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5년 6월 2일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19일

Apparition of Venezuelan New Collective Subject: 'Territoriality' of People and Baroque Ethos

- Focusing on Barrial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of Urban Land -

Tae Hwan, Ah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092

093

Ahn, Tae Hwan(2015), Apparition of Venezuelan New Collective Subject: 'Territoriality' of People and Baroque Ethos - Focusing on Barrial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of Urban Land -. *Revista Iberoamericana*.

Abstract This study aims for the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barrial organizations and the Committees of Urban Land from 1980 until now. The Venezuelan poor people moved from the countries to the cities since 1930s and 1940s, and began to live unlawfully in empty lands, regardless of public or private possession. They have had the homogeneous social-cultural identity which was characterized as social or collective. Meanwhile, in the 1980s, the social-economic crises came to Venezuela but the people who lived in 'barrio' became to protest and request for the habitat or the right to live demanding the 'collective possessive right of the lands' to the government. Through these struggle, they could appear as a new social subject of collective people. This collective power made the Chavez government to accept the legal formation of Committees of Urban Land in 2002. It owes to the unique and homogeneous collective way of life attached to the living lands, namely 'territoriality'. These cultural identities can be explained as 'baroque ethos' centered at daily beliefs and world visions of Latin American people. Also the achievements of the Committees of Urban Land reaches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cities in Venezuela.

Key words Barrial organizations, Committees of Urban Land, collective possessive right of the land, territoriality, baroque ethos, democratization of the cities